

클래식 음악 이용자의 정보탐색행태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of classical music users

김보경, 성균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bkkim1022@gmail.com

안종헌, 성균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perkvist15@gmail.com

Bo-Kyeong, Kim, Departmen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ungkyunkwan University

Jong-Heon, Ahn, Departmen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ungkyunkwan University

본 연구의 목적은 순간적 시간흐름 면담기법과 Think-Aloud 면담기법을 통해 클래식 음악 이용자의 정보탐색행태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용자들의 정보탐색행태는 키워드 검색, 브라우징,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활용의 세 가지 행태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클래식 음악 이용자들이 검색과정에 겪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이용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클래식음악 검색시스템 설계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이전에는 클래식 음악을 부유층이나 일부 계층에서 소비하는 문화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영화나 드라마, 광고 음악을 통해 클래식 음악이 대중화되면서 일반인들의 소비와 정보 욕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현 클래식음악 검색시스템은 단순한 키워드 및 디렉터리 검색만 가능하거나, 각 정보들 간의 관계가 연결되지 않은 채 단순하게 나열하는 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그로 인해 이용자들은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많은 시간을 소비해야 하고, 검색 활동 중에 추가로 유용한 정보를 얻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

이미라(2014)의 연구를 보면, 일반인들의 클래식 음악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0.5%가 클래식 음악이 삶의 질 향상과 정서 함양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하지만 정보탐색에 대한 질문에서는, 이용자들이 클래식 음악에 대한 정보를 「거

의 얻지 못한다」는 부정적인 답변이 응답자의 31.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따라서 점차 증가하는 클래식 음악에 대한 관심에 맞추어, 이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적절하게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그들의 정보 검색행태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Dervin(1983)이 고안한 Sense-Making 접근방법에서 사용하는 Micro-Moment Timeline(이하 MMT) 면담기법과 Think-Aloud 면담기법을 적용하여 클래식 음악의 정보탐색과정을 알아 볼 것이다.

2. 선행연구

이용자의 정보탐색행태에 관한 연구는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중 정은경(2012)은 대학생들의 멀티미디어 정보요구와 검색행태에 대해 연구했다. 대학생들은 멀티미디어 정보를 얻기 위해 보편적, 추상적 요구에 비해 특정한 요구가 주도적인 정보요구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다른 멀티미디어 요소인

이미지와 비디오 보다 오디오 검색 요구에서 더욱 두드러진 형상인데, 그 이유는 이용자들이 음악검색에서 브라우징보다는 키워드를 사용한 정보접근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Lee & Downie(2004)는 실생활 속에서 음악정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정보 욕구, 정보 이용 및 탐색 행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용자들의 음악 장르 선호도는 대중음악인 Rock, Pop에 이어 Classical Music이 3위를 차지했다. 또한 이용자들의 음악과 관련된 온라인 활동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음악에 관한 다양한 종류의 정보를 읽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음반 구매나 음악 감상 그리고 온라인 라디오를 듣는 것보다도 높은 빈도를 나타냈다.

이처럼 이용자들은 대중음악뿐만 아니라 클래식음악에 대한 정보욕구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명되었고, 특정 클래식 음악에 관한 정보 욕구를 갖고 있으며, 온라인을 통해 관련 정보를 찾기 위한 탐색 활동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음악 전반에 대한 이용자들의 정보 탐색 행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비해, 클래식 음악에 대한 연구는 아직도 미비한 상황이다.

3. 연구방법 및 과정

3.1 연구 참여자의 구성

본 연구의 참여자는 기본적으로 온라인을 통해 클래식 음악에 관한 정보를 검색해본 경험이 있고, 클래식 음악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관련 지식이 많지 않으며, 온라인상에서 정보를 검색하는 것에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20~30대 성인 5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실제로 인터뷰에 응한 대상자는 <표 1>과 같다.

<표 1> 인터뷰 응답자의 구성

성별	연령대	직업
남	30대	연구원
여	20대	대학생
여	30대	주부
남	30대	소방관
여	20대	대학원생

3.2 연구방법

데이터 수집을 위해 Dervin의 MMT 면담기법과 Think-Aloud 면담기법을 이용하여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MMT 면담기법은 Sense-Making 방법론과 가장 잘 부합하는 인터뷰 기법으로, 사람들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떠한 방법이나 과정으로 이해하는 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체계적인 틀을 제시하는 방법론이다. 한 개인이 시간과 공간의 흐름 속에서 그의 행위를 구성하고 설계하는 것에서 나타나는 행동들을 분석하므로, Sense-Making 접근법은 모든 커뮤니케이션 상황의 인지과정 분석에 활용되는데, 특히 정보이용과 정보탐색상황에 많이 적용될 수 있다(Dervin 1983). 결국, MMT 면담기법은 최근에 겪은 행동이나 과거에 일어난 일이지만 생생하게 기억되는 경험을 선정해 그 과정에서 중요한 사건(event)들을 첫 사건부터 마지막 사건을 본인이 직접 결정하도록 한다(E1..En). 여기서 ‘사건’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장면이어야 하고, 그 다음 단계로 각 사건이 발생할 때 가졌던 질문들을 사건과 연관 지어 열거하게 한다. 그리고 각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시도를 했고 어떤 답을 얻었는지,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를 각 질문별로 상세히 기록하고 분석하는 방법이다(고영만, 오삼균 2000).

Think-Aloud 면담기법은 문제해결과정 도중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그대로 구어로 표현하도록 유도하여, 응답자가 문제해결과정

에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지를 파악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탐색하는 사람들의 실제 생각과 감정에 관한 정보를 얻기에 효과적인 기법이다. Think-Aloud 면담기법은 처음엔 다소 어색할 수 있기 때문에 “123 곱하기 45”를 푸는 과정을 말로 설명하는 것과 같은 Think-Aloud 면담기법을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다(김태용, 박재영 2005).

본 연구에서는 미리 설계한 상황들에 맞춰 Think-Aloud 면담기법에 의한 인터뷰 과정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또한 모든 인터뷰 진행시 YouTube 및 mkv 형식의 영상이 재생되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뷰 전 과정을 녹음하였다.

<표 2> Think-aloud 면담기법에 의한 인터뷰 절차

단계		내용
인터뷰 설명과 연습		Think-Aloud 기법의 설명과 연습
인터뷰 진행	상황1	작곡가만 알고 있는 상황에서의 정보탐색과정
	상황2,3	영상에 나온 클래식 곡에 관한 정보탐색과정
	상황4	간단한 멜로디만 알고 있는 상황에서의 정보탐색과정

3.3 데이터 분석

본 연구의 데이터 분석은 인터뷰를 실시한 5인의 클래식 음악 정보검색 경험에 대한 데이터와 Think-Aloud 면담기법을 통해 수집한 데이터들을 이용해 진행하였다.

녹취한 데이터들의 스크립트를 작성한 후, 공동연구자들이 서로 확인해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하였다. 이후 스크립트 검토를 통해 온라인 정보탐색행태를 종류별로 나누었고, 각 행태들의 특징과 이용자가 느꼈던 감정을 파악하였다.

4. 분석 결과

MMT 면담기법과 Think-Aloud 면담기법을 통한 인터뷰를 통해 얻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클래식 음악의 정보탐색행태는 크게 세 종류로 키워드 검색, 브라우징(browsing),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음악검색으로 나눌 수 있다.

키워드 기반 클래식 음악검색은 네이버, 구글과 같은 일반 포털 사이트, YouTube와 같은 동영상 공유 사이트, 클래식 음악전문 사이트에서 이루어졌다. 주로 작곡가명, 곡명, 지휘자, 연주가, 악기, 음악이 사용된 영상자료명과 같은 메타데이터를 토대로 검색을 실행하였고, 자동완성기능과 연관검색어를 이용해 추가적인 정보탐색이 이루어졌다. 또한 클래식의 장르나 우울, 슬픔과 같은 감정을 나타내는 키워드를 이용한 검색도 이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브라우징은 주로 클래식 음악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작곡가, 연주자, 장르, 테마 카테고리를 이용한 검색이 주를 이루어졌다. 특히 테마 카테고리의 경우, ‘가장 아름다운 클래식’, ‘혼자 있고 싶을 때 듣는 클래식’, ‘영화나 드라마에 쓰인 클래식’과 같이 다양한 감정정보나 메타데이터 요소를 이용해 제공되고 있어 다양한 테마를 브라우징하면서 원하는 정보를 탐색하는 것이 가능했다.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음악검색은 검색어가 아닌 음악 자체로 검색하는 방법이다. 메타데이터 정보가 없어도 스마트폰을 통해 음악 자체로 곡명, 앨범, 작곡가 등의 메타데이터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이용자들은 이런 기능을 이용해 곡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얻을 수 있지만, 음악 재생을 위해서는 특정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키워드 검색을 실시하였다.

5. 결 론

본 연구는 클래식 음악 이용자의 정보탐색행태를 알아보기 위해 MMT 면담기법과 Think-Aloud 면담기법을 이용하였다. 연구 결과, 클래식 음악 이용자들이 정보탐색과정 중 나타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작곡가나 곡명과 같은 중요한 메타데이터를 미리 알고 있는 이용자의 경우, 검색과정에 큰 어려움을 겪지 않지만 추가적인 정보를 얻는 방법으로 연관검색어와 자동완성기능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기능은 체계적으로 분류된 클래식 음악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이용자가 신뢰성이 높은 전문적인 정보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둘째로는 카테고리 분류가 이용자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해 효과적인 브라우징이 힘들다는 것이다. 작곡가나 곡명을 모르는 경우,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카테고리를 통해 브라우징이 가능하지만 이용자의 특정한 정보요구를 만족시키는데 한계가 있었다.

셋째로 정확한 클래식 곡명을 단번에 파악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클래식 곡명은 일반적인 음악의 제목과 달리 악장, 장조, 번호, 빠르기말(Tempo Signature) 등의 정보까지 포함되므로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된다. 하지만 같은 곡명이 다르게 표현된 경우, 동일한 곡임을 알려주는 기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용자가 추가적인 검색을 통해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클래식 음악 이용자의 정보탐색행태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한 정보탐색행태의 연구를 위해 MMT 면담기법과 Think-Aloud 면담기법을 이용한 인터뷰를 활용한 연구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미가 있다. 다만 연구대상자들이 20~30대로 한정되어 있고, 피실험자 수가 적으며, 클래식 음악 전문가가 아닌 일반적인 이용자로 구성되어 있어 클래식 음악 이용자 전체의 정보탐색행태로 일반화하기 힘들다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여러 연령대와 클래식 음악에 관한 다양한 지식수준을 가진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인터뷰를 통해 이용자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반영하는 체계적인 클래식 음악정보검색 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고영만, 오삼균. 2000. "문제극복 모형의 적합성과 정보화 교육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17(4): 7-26.
- 김태용, 박재영. 2005. "발성사고법(Think Aloud)을 이용한 인쇄신문 독자의 기사선택 과정 연구." 한국 언론학보 49(4): 87-109.
- 이미라. 2014. "클래식 음악의 대중화를 위한 방안 연구."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은경. 2012. "멀티미디어 정보요구와 검색행태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6(3): 251-270
- Dervin, Brenda. 1983. "An overview of sense-making research: concepts, methods, and results to date."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International Communication Association annual meeting, Dallas.
- Lee, J. H., and Downie, J. S. 2004. "Survey of music information needs, uses, and seeking behaviours: Preliminary Findings." ISMIR. Vol. 2004.